

## 제6기 최고지도자과정 1박2일 현장 답사를 다녀와서

한정환 농촌생태관광실장  
본 협회 부설 도농녹색교류연구소

지난 5월 31일, 선진지 견학을 떠나는 아침, 제6기 최고지도자과정 수강생들과의 1박 2일을 머리 속에 그려보았다. 강춘성 회장, 최동주 총장, 부설연구소 박영선 부소장의 농업, 농촌 선진지에 대한 오랜 경험과 이념이 녹아있는 일정이라고 생각하니 많은 농촌관광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었다. ‘웅성웅성’ 한 분, 두 분씩 모이기 시작하고 이내 참가하시는 수강생 분들이 다 모였다. 최동주 총장의 일정에 대한 30분의 강의를 뒤로 한 채 우리는 일정보다 약 30분 늦게 출발을 했다.

이번 여정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이러했다.

‘여정 내내 수강생들을 농촌관광 체험자라고 생각하고 충실히 가이드팅 하겠다.’

‘수강생들과 함께 버스에 있을 땐, 농촌관광 가이드팅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농민이 관광을 어떻게 해? 가이드팅을 어떻게 해? 라는 생각을 실전을 보여 주고 싶었기에 시작부터 예전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정을 진행했다.

### 출발과 함께 힘찬 인사로 시작했다.

시작에서의 웃음은 여행 내내 밝음을 모두에게 나누어준다. 인사도 나에게 하나의 기술이자 기법이다. 참가자들의 얼굴에 미소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우선 농촌관광을 참여하는 도시민들에게 농촌관광을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농민

은 우리가 버리고 떠난 자연을 우리 뒤편까지 피와 땀으로 지키고 있는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들이기에 그 분들의 경제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 들이기 위한 우리의 미약한 감사의 표현’ 이라고 항상 난 농촌관광을 떠나는 버스에 올라 처음으로 이야기 했었고 이 날도 이 말을 시작으로 가이드팅을 시작했다.

“기대하세요. 지금은 제가 마이크 잡고 있는 것에 재미있게 다들 듣고 계시지만, 나중에 이럴실 걸요? ‘한 실장 또 마이크 잡았어?’ 라구요. 그래도 전 계속 떠듭니다. 네”라고 하자 또 한번 버스는 웃음바다가 되었다. 버스가 이동하면서 도심을 통과하는 사이 눈에 보이는 아주 평범한 것들을 어떻게 가이드팅을 하는 지에 대해 말씀드렸다.

“옆에 한번 보시겠어요? 플라타너스가 보이시죠? 그것 아세요? 잠실 롯데 월드 앞에 플라타너스가 가득한 데 그 중에 튜올립 나무가 있다는 거?” “아! 저기 오른쪽으로 은행나무가 쪽~ 있네요. 보이시죠? 은행나무가 공룡이랑 같이 살던 식물이란 것 아세요?” 라고 하며 이야기를 진행하자 이내 참석자들은 제 이야기에 점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없다고 하는 우리 마을엔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식물, 동물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 하나하나가 소중한 아주 소중한 자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다음번에 자랑 만났을 때, ‘우리 마을엔 자원이 없다’ 이런 말씀하시면 저 빠질 겁니다.(다들 웃음)”

수강생들이 현장견학지로 선정된 마을을 심도 있게 느끼고 평가하게 하고 싶었던 까닭에 가이드북은 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만들었다. “이제 여러분들은 물론, 선진지를 통해서 우리 마을에 무엇이 필요하 다. 어떤 형태로 가야할 것이다. 라는 것도 배우셔야 하겠지만, 앞서 말씀드렸 듯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마을의 장단점을 잘 분석하고 그래서 선진지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나누어 드린 체크리스트를 꼭 확인하세요.”

### 첫번째로 도착한 이천의 부래미 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는 동안 우리가 탄 차량은 이내 첫 번째 목적지인 이천 부래미 마을로 접어들고 있었다.(각 마을들에 대한 이야기는 필자의 의견보다는 수강생들과 공유했던 평가를 중심으로 쓰고자 한다.)



▲ 부래미 마을 대표가 마을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마을 한 바퀴를 거치고 나오면서 수강생들의 반응은 주로 ‘여기 보다는 우리가 낫다’ 였다. 하지만, 이내 부래미 총무님의 강의를 같이 평가하면서 내용은 바뀌었다. ‘그렇구나’ 로... 부래미 주민들은 참 대단한 분들이었다. 분명히 시스템이라는 것을 구축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을 홈페이지에 “이번엔 어떤 단체에서 어떤 분들이 오시는데, 프로그램은 이런 것이며, 진행은 어느 분이 해 주시고, 식사 준비는 어느 분이 해 주세요.”라고 올려놓으면 마을 주민들이 직접 확인하고 당일 행사에 맞추어서 미리 준비를 한다는 것이다.

홈페이지가 있어서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전화로 그 시스템을 이미 운용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운영의 주체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나누는 멋진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시스템을 부래미 마을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마을 3개 마을을 엮어 추진 중이었다.

‘자원이 없다. 하지만 대단한 마을’, ‘모두가 함께 하는 마을’ 이 우리가 내린 결론이었다.

### 두번째로 찾아가 마을은 원주의 주포리였다.

부래미와 상반된 이미지의 마을 주포리.. 인적 자원도 풍부하고 마을 뒤로 멋지게 서있는 미륵산을 배경으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이미 많은 마을이었다. 같이 동행한 수강생들은 언제 부터인가 마을의 평가단이 되어 있었고, 탐사자가 되어 있었다. 이장님과 일행이 대화하는 동안 일부는 마을 주민을 찾아다니면서 질문하고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것이다.

주포리에서 떠나오면서 우리들은 마을 사업을 모두가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에 대해 알게 되었다.

마을 입구에 흙벽으로 아궁이까지 마련된 체험장과 아이러니 하게도 비닐 사이딩으로 만들어진 미국식의 건축물이 보여주는 어색함은 마을사업은 면밀한 계획에 의해 움직이고 모두가 공감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컨설팅트와 유기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공감시켜 준 마을이었다.

### 세번째로 찾아간 첫 날 여정의 마지막 코스, 양평의 신론리

바쁜 일정에도 초롱초롱 이야기를 주고 받고 하는 수강생들을 보며, 감사하다는 마음마저 들었다. 피곤하실 법도 한 데... 두 마을의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하면서 이내 버스는 신론리로 접어들었고, 버스에서 내리는 수강생들을 보면서 또 한 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체크리스트를 들고 일일이 체크하시는 분들의 모습...

우리를 맞이한 분은 신론리의 이사님이었다. 귀농을 결심하시고 전국 여러마을을 돌아다니다가 신론리의 대표와 마음이 맞아 정착했다는 그 분은 신론리를 이렇게 소개했다. '정말 없는 마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갈 길이 이것이라 생각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날 저녁 식사 이후에 이어진 마을 소개는 휘영청 떠 있는 달이 무색할 정도였다. 소개가 끝나고 토론이 새벽 2시까지 이어졌는데, 그 열띤 모습이란... 그 자체가 감동이었다. 이 분들이 이 과정을 모두 마치고 각자 마을의 리더로서 짊어지고 열심히 나아가실 모습이 그려졌다고나 할까...

그렇게 토론이 끝나고 새벽 3시, 모두가 잠들고 나서 필자도 잠자리에 들었다.



▲ 신론리마을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는 신론리 이사님.

새벽 6시... 신론리에서 맞이한 아침은 내게 묘한 기대감을 가지게 하였다. 오늘은 수강생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날 감동시켜줄까 하는 ... 그러나 그 기대는 그날 아침 바로 실현되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신론리를 떠나오면서 버스에서 가진 자체 평가.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시는 수강생들... 결론은 "유기적인 시스템, 다양한 프로그램, 멋진 사람들, 훌륭한 화법과 회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험과 기술, 기법... 중요하지만 마을 전체가 함께 하는 모습이 역시 보기 좋고 우리는 그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 라고 하는 의견으로 모아지고 있었다.

### 네번째로 찾아간 화천의 신대리

신대리에 찾아간 우리를 맞이 한 분은 신대리의 이장님이었다. 역시 이 자리에서도 수강생들은 각자의 생각을 비교하고 있었다. 당신들이 '무엇을 이 마을에서 가져가야 하겠다.' 라는 생각을 이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정한 것이다.

일정에 맞추어 신대리 이장님의 마을소개, 인터넷을 통한 마케팅, 폐교를 활용한 숙박, 식사시설 그리고 마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마을을 돌아보려 하는데 수강생들이 폐교를 둘러보고 마을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를 더 궁금해 한 것이었다. 그렇게 어제 밤의 열기가 식지 않은 채 신대리에서의 1시간 30분이 열띤 대화로 또 이어졌다.

버스에 오른 우리는 이미 결론을 내리는 데 주저함이 없었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토론자가 되어 있었다. "신대리는 아직도 진행 중", 참 좋은 마을이라는 것, 이장님의 웃음이 이 마을을 도시민에게 어필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것, 마을 주민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노력과 그 마음을 잊지 않으려 자신을 채찍질 한다는 것이 이 마을을 아직

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끄는 원동력이라는 것이 당신들이 내린 결론이었다.

### 다섯번째로 찾아간 포천 도평리의 한국산촌체험학교

신대리에 대한 이야기를 뒤로하고 약간은 허기진 배를 달래며 산촌체험학교에 도착한 우리는 산촌체험학교에서 준비해 놓은 식사를 하고 주어진 1시간을 강의 30분과 산촌체험학교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가졌다.

지금까지의 일정 내내 유사한 평가를 내리던 분들의 산촌체험학교에 대한 평가는 좀 달랐다. 어떤 분들은 도시사업가에게 자금지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어떤 분들은 한정된 예가 아닌가라는 평가를 내리면서 일반적인 선진지가 아니라는 평가를 내린 분들도 있었다.

많은 이야기를 뒤로 한 채, 또 다시 우리가 탄 버스는 다음 목적지인 바보꽃밭으로 가고 있었다. 바



▲ 한국산촌체험학교에서 열의를 가지고 경청하고 있는 교육생들.

보 꽃밭에서의 달콤한 휴식을 가지면서도 수강생들은 어느새 바보꽃밭 원장님과 또 다시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느냐?, 왜 자생수종으로 하지 않았느냐?, 농가에서 이런 형태의 꽃밭을 꾸미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등 정말 이번 수강생 분들은 이미 한 분, 한 분이 이미 토론가가 되어 있었다.



▲ 경기포천 바보꽃밭을 둘러보고 있는 교육생들

### 귀경길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이미 수강생 분들과 나는 동지가 된 듯 했다. 1박2일의 현장답사가 우리들에게 특히, 필자 본인에게는 수학여행이 되어 버렸고 내가 가이드를 잘 했나 못 했나 하는 것도 잊어버린 채 동지가 되어버렸다.

“바둑도 복기를 통해서 실력이 는다고 했죠? 어제와 오늘 우리가 같이 했던 1박2일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죠.”라고 말씀을 건네며 우리의 일정 하루하루를 다시 짚어보기 시작했다. 처음 출발하면서 웃음으로 시작했던 것, 달리는 버스 안에서 이야기했던 식물 이야기, 일정과 일정 사이를 옮겨가며 나누었던 마을에 대한 평가와 토론들... 버스 안에서의 30분에 가까운 복기가 끝나고 “이제 돌아가시면 각자의 후기를 각자가 꼭 써주세요. 자신의 평가가 가득한 글을 협회나 연구소의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다시 한 번 생각한 각자의 평가를 읽어보는 것으로 이번 답사가 더욱 새롭게 여러분께 남을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남기는 찰라, 우리 버스는 이미 진 흥관 앞에 다다랐다.

서로에게 수고하셨다고 재차 일일이 인사를 전하는 수강생들을 보면서 필자는 다시 한 번 우리의 역할에 대해 깊은 사명감을 가지게 되었다.